

오늘 SK와 단판 승부... "새로운 기록 계속 써갈 것"

사상 첫 준플레이오프 진출 이끈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오세일 감독



선수들 경험 적지만 의지 충만
새로운 세트 플레이·전략 마련
팀당 관중 40여명 입장 변수
국가대표 감독 경험 살려 지휘
큰 경기 잘 치러 새 도약 계기로

"선수들이 큰 경기라는 부담감 때문에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년 꼴찌"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팀을 리그 준플레이오프까지 끌어올린 오세일(사진) 감독. 오 감독은 19일 오후 2시30분 청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리는 SK코리아리그 여자부 준플레이오프 SK전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SK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정규 리그 경기가 끝나자마자 SK 경기를 영상으로 복기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심지어 SK 선수들의 수비 패턴대로 대형을 짜놓고 공격력을 시험하는 등 전력 분석에 심혈을 기울였다. 에이스 강경민, 원선필 등 주력 선수들도 SK

의 방어망을 뚫기 위해 개인훈련을 하기도 했다.
오 감독은 "서로 상대팀 전략과 강점,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다. 상대에게 노출된 전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우리로 새로운 세트 플레이, 운용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이 실전에서 얼마나 먹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도시공사의 전력은 상위권이다. 리그 21개 팀을 뛰면서 입증된 공격력이다. 경기당 27골 이상 넣었다. 골키퍼 수비력과 선수들의 스피드가 융합돼 만들어진 골이었다. 이른바 '미들속공'이다.
오 감독은 큰 게임을 많이 치른 베테랑이다. SK 호크스 지휘봉을 잡고 챔피언 결정전을 치렀고 2003년 국가대표 핸드볼팀 감독을 역임했다. 감독 경험으로는 리그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는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대목은 선수들. 광주도시공사는 사실 큰 게임의 경험이 없다. 2010년 창단 이래 첫 플레이오프 진출이다.
그나마 국가 대표를 지낸 원선필이 유경험자고 에이스 강경민도 포스트 시즌 게임이 처음이다.
단기전에서는 경기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승부를 좌우한다는 게 상식이다. 더구나 이번 SK전은 단판 승부다. 이 때문에 경험없는 선수들은 긴장과

부담감 때문에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자칫 정신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예기다. 오 감독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역으로 SK는 경험면에서 우위에 있다. 지난 시즌 리그 챔피언이었고 그 당시 멤버들이 유지되고 있다.
변수는 또 있다. 지금까지 정규리그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해왔으나 준플레이오프부터는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오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팀당 40여명의 관중이 입장한다. 선수 부모, 팀 관계자들이 다수 관전하기 때문에 의외로 바뀐 경기환경 때문에 선수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승부를 바탕으로 팀이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오 감독은 "SK전에 모든 것을 걸겠다. 리그에서 7승을 목표로 했던 팀이 플레이오프까지 왔다"며 "선수들도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큰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광주도시공사는 분명히 다른 팀이 돼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오사카 vs 제니퍼 내일 호주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결승



오사카 나오미

오사카 나오미(3위·일본)가 세리나 윌리엄스(11위·미국)를 제압하고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800만 호주달러·약 686억원) 결승에 진출했다.
오사카는 18일 호주 멜버른의 멜버른파크에서 열린 대회 11일째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윌리엄스에게 2-0(6-3 6-4)으로 완승했다.

3번 시드 오사카는 22번 시드 제니퍼 브레이디(24위·미국)와 20일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격돌한다.
오사카는 2019년 이후 2년 만의 이 대회 우승이자 통산 4번째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오사카는 앞서 2018년, 2020년 US 오픈에서도 우승한 바 있다.
오사카는 윌리엄스와 상대 전적에서 3승 1패로 앞서나갔다.
윌리엄스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마거릿 코트(은퇴·호주)가 보유한 메이저 대회 남녀 단식 최다 우승 기록(24회)과 동률을 이룰 수 있었으나, 이는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2017년 출산 뒤 첫 메이저 대회 우승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브레이디는 오사카보다 기량 면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된다.
브레이디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우승만 한 차례 했을뿐, 메이저 대회 우승 경력이 없다. 2020년 US오픈 준결승이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었다.
당시 준결승에서 브레이디를 제압한 선수가 오사카다. 오사카는 이를 포함해 브레이디를 상대로 통산 2승 1패를 기록 중인데, 패배한 것은 무려 7년 전 일이다.
'사실상의 결승전'이라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오사카는 한때 '여제'로 불린 윌리엄스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최고 서브 속도는 시속 197km로 같았으나 전체 획득 포인트(62-48), 실책(21-24), 위너(20-12) 등에서 오사카가 우월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오사카는 4차례 맞은 윌리엄스 서브 게임 브레이크 기회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포인트로 연



제니퍼 브레이디

결해내는 집중력을 보였다.
반면, 윌리엄스는 오사카 서브 게임 브레이크 기회 7차례 중 2차례만 성공했다.
이러진 경기에서 브레이디는 카롤리나 무호바(27위·체코)에게 2-1(6-4 3-6 6-4)로 이겼다. 브레이디는 마지막 게임에서 무려 6차례나 듀스를 기록하는 접전 끝에 매치포인트를 따냈다. /연합뉴스



지난달 태국오픈 출전을 앞두고 방콕에서 코로나19 검사 받는 안세영.

/연합뉴스

배드민턴 미래 안세영 "마린과 또 붙고 싶다"

통산 2승 4패... "기 죽지 않는게 목표"
도쿄올림픽 출전에 메달 꼭 딸 것

카롤리나 마린(28·스페인)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다. 아시아 출신이 아닌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때 세계랭킹 1위를 달렸던 마린(현 3위)은 득점을 낼 때마다 고함을 질러 상대의 기를 꺾어버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광주제고를 졸업한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 안세영(19·삼성생명)은 지난달 마린과 3번이나 맞붙었다. 태국에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대회가 열렸을 때다.
안세영은 1월 16일 요넥스 태국오픈 4강과 23일 도요타 태국오픈 4강에서 마린에게 패해 결승이 좌절됐다.
하지만 '왕중왕전'인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는 달랐다. 안세영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마린을 2-1(21-16 14-21 21-19)로 꺾고 조 1위로 4강에 올랐다.
이번에는 안세영이 고함을 쳤다. 마린을 상대로 점수를 내면서 호쾌한 기합 소리를 냈다.
비록 파이널 4강에서 세계랭킹 1위 타이쯔잉(대만)에게 패했지만, 안세영은 마린과의 대결을 즐거운 기억으로 담아두고 있다.

안세영은 18일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마린에게 기죽지 말자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고 말했다.
사실 안세영이 마린 앞에서 기죽을 이유는 없다. 안세영은 2019년 10월 프랑스 오픈 결승에서 마린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기억이 있다. 안세영과 마린의 상대 전적은 2승 4패다.
안세영은 "마린 선수가 작년보다 더 빨라지고 힘도 좋아졌더라. 처음에는 당황해서 적응을 못했다"고 마린에게 연패를 당한 이유를 되짚어봤다.
"마린 선수보다 스피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많이 배웠다"는 그는 "마린 선수와 계속 붙어보고 싶다, 지더라도 라며 승부사 기질을 내비쳤다.
태국 현지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8번이나 했지만 안세영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연습만 했는데, 대회에 참가한 것만으로 좋았다"며 모든 것을 즐겼다고 밝혔다.
또 이번 태국 투어에 불참한 천위페이, 허빙자오(이상 중국), 오쿠하라 노조미(일본) 등 다른 상위 랭커들도 넘고 싶더라 "더 이겨보고 싶다"고 의욕을 다졌다.
2020 도쿄올림픽 메달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
안세영은 "올림픽에 한국 여자단식 대표로 나가는 것만으로 영광"이라며 "어린 나이에 메달을 한번 따보고 싶기도 하다"며 목표를 밝혔다. /연합뉴스

권순우 이탈리아 챌린저 테니스 8강 진출

로베르토 2-0 완파

권순우(97위·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비엘라 챌린저 2차 대회(총상금 13만 2280 유로) 단식 8강에 올랐다.
권순우는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비엘라에

서 열린 대회 나흘째 단식 본선 2회전에서 로베르토 마르코라(182위·이탈리아)를 2-0(6-2 6-2)으로 파들렸다.
1, 2회전을 모두 무실 세트 경기로 마친 권순우는 토마스 파비아노(174위·이탈리아)-아니코 마든(175위·독일) 경기 승자와 준준결승을 치른다.

챌린저 대회는 투어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에 해당한다.
호주오픈 1회전 탈락 후 이탈리아로 이동한 권순우는 이번 대회 3번 시드를 받고 출전했다.
1번 시드를 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54위·스페인)가 받았고, 2번 시드는 서베스천 코르다(88위·미국)에게 돌아갔으나 코르다가 1회전에서 탈락해 현재 대진표에 남은 선수들 가운데 권순우의 세계 랭킹이 두 번째로 높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션 파서블
2관	미션 파서블, 더블패티
3관	소울, 빛과 철, 퍼펙트 게이, 긴이역
4관	소울
5관	새해전야
6관	미션 파서블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7관 씨네커를	시간의 끝에서 널 기다려 명탐정 코난: 진홍의 수취여행 어니스트 씨프, 인투 더 미러
8관 씨네커를	아이, 몬스터 헌터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비엔나의 봄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 콘서트 I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GAC기획공연 포시즌즈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